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75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9월 5일 (음력 7월 26일) 수요일

광주시-5개 자치구 '상생협력' 선언



광주시는 4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광주시-자치구 상생회의'를 개최했다.

민선 7기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시민행복과 지역발전, 지방행정 혁신 등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을 선언했다. 또 부단체장급 1대 1 교류 등을 담은 인사교류 협약도 체결해 민선 6기 당시 불거졌던 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4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광주시-자치구 상생회의'를 개최했다.

이 시장과 구청장들은 시와 자치구 간 지속적인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대시민 상생·협력 선언문'을 채택했다.

단체장들은 선언문에서 ▲주민참여와 소통확대 ▲지방행정 혁신 ▲지역 현안 및 상생·협력 과제 발굴 ▲상호 존중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자치구가 각각 5년씩 제한한 상

민선 7기 첫 상생회의 개최 협력선언문 채택 시-자치구 인사교류 협약...해묵은 갈등 해소 변화·혁신 상생협력과제 10건 발굴 공동추진

상생협력 과제는 ▲새로운 광주를 위한 변화와 혁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2018년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 개최 ▲가로시살롱 통합 설치 운영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민들기 운동 추진 ▲광주시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제조정 추진 ▲농성동 빛어울재아파트 사회복지관 사랑의 식당 확충 ▲남구노인복지관 증축 추진 ▲지방비 매칭비를 조정 협의체 운영 ▲도약하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성공 개최 지원 등이다.

이 시장과 구청장들은 또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인사 독립성을 존중하는 내용을 담은 7개 항의 인사교류 협약도 체결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자치구 부구청장(3급) 인사는 1대 1 상호교류를 대전제로, 자치구의 자체승진을 인정하되 승진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구청장 요원을 시에서 자치구로 진출하기로 했다. 대신 자치구의 4급 또는 5급 1명이 시로 진입하는 방식이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행정부시장, 5개 자치구 부구청장 등이 참여하는 인사교류협의회를 운영한다. 또 인사담당자들로 인사

교류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인사교류 기준과 실행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서기관 등 인사교류는 자치구 결원 발생시 '자체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교류시에는 광주시 4급과 자치구 4급 또는 5급을 각각 진출입하기로 했다.

광주시 7급 이하 결원 충원은 자치구 전 인출원 50% 신규충원 50%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회소직렬 인사통합과 자치구 직원의 시 파견근무 및 계획인사교류 추진 등도 포함됐다.

이번 인사교류 협약에 따라 민선 6기 당시 광산구 부구청장 자체 승진을 계기로 야기됐던 인사교류 갈등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시와 자치구는 지방행정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고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광주가 광주답게 나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연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시·구 담당 국장들을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필요시 수시회의를 갖자"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엇갈린 행보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각각 일선에서 물러났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대표와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이달 중순 추석 제사를 위해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홍준표 전 대표는 최근 주기를 짧게 가져가며 페이스북을 통해 정계 복귀를 암시하고 있다.

반면 최근 서울 미포 사무실에서 발견되며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안철수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독일로 출국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것은 언론에 한 줄 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정리하고 공유하고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한 이라며 "다구나안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 뜻이 왜곡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관련 인사들의 추세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



추석 전에 들어갈거다



독일에 여정을 펼쳤다



파배자의 행로는 언제나 시민들

광주·전남 기록적 폭염에 피해 규모 '눈덩이'

'역대 최장' 폭염 26일 · 열대야 25.7일
온열질환 치료 438명 가운데 6명 숨져
가축 97만 · 어류 405만 · 농지 426.3ha

울여름철 광주와 전남 지역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다.

4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6월~8월)동안 광주·전남 지역의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가 각각 26일·25.7일을 기록했다. 이는 기상청이 공식통계를 작성한 1973년 이래 최고기록이다.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돈 날을 뜻하며, 열대야 일수는 밤사이(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말한다.

특히 광주는 같은 기간동안 폭염일수가

43일을 기록했으며, 36일(7월2일~8월16일)간 33도 이상을 기록했다. 목포도 7월23일부터 8월16일까지 25일 동안 폭염이 이어지는 등 폭염일수가 총 31일에 이르렀다.

열대야일수는 여수가 40일로 가장 많았으며, 한때 29일(7월18일~8월15일) 내내 열대야가 지속돼 전국 최장기록을 경신했다. 목포와 광주의 열대야일수는 각각 38일과 30일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밤에는 열대야가 연일 이어지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 여름철 평균기온은 25.8도로, 평균기온 최고 기록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평년(1981~2010년) 평균기온은 23.9도였다. 광주·전남 지역의 평균 최고기온은 30.2도로 1994년 30.1도 기록을 제쳤다.

광주의 일일 최고기온도 기상관측을 시작한 1939년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주는



나주 세지면 오리농가 피해

지난 7월27일과 지난달 15일에 낮 최고기온이 38.5도를 공식기록했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피해도 잇따랐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6월부터 8월까지 438명이 온열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이중 6명이 숨졌다.

전남의 경우 울여름 온열질환자가 321명 발생, 지난해 196명보다 크게 늘었다.

광주와 전남 19개 시·군 축산농가 563곳에서 닭·오리·돼지 등 97만2328마리가 폐사했다. 피해액은 28억5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나주는 농가 145곳에서 25만7310마리가 폐사해 가장 피해가 컸다. 영암 13만6280마리·함평 12만1165마리 순이다.

고수온 영향 등으로 양식장 피해도 속출했다. 지난해 29일 기준 여수·신안·함평·장흥·고흥 5개 시·군 양식장 85곳에서 돌돔·납치·우럭 등 405만8000마리가 폐사했다. 피해신고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33억 4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신안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고수온에 따른 폐사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당국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폐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폭염에 따른 양식장 피해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작물은 목포·여수·광양을 제외한 전남 19개 시·군에서 426.3ha가 말라죽었다. 지역별로는 장성이 86ha로 가장 피해가 컸고 나주 85.1ha, 영암 51.2ha, 담양 35.9ha, 무안 24ha 등의 순이다.

발작물은 고구마 49.9ha, 콩 45.6ha, 옥수수 12.8ha 등 총 109.3ha가 피해를 입었다. 조인호 기자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산업현장!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할수 있는 전남노사민정 사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라남도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가 도와 드립니다.
-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